될 놈 될 -> 될 놈을 찾자

프리토타이핑과 데이터 검증 방법론

직장 일로 바쁜 사람들 중 일부는 인터넷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는데 관심을 가질거 같아 공기 오염이 심하게 된 도시에 사는 사람 중 대다수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장치에 관심을 가질 거 같은데?

우리에게 중요한 것은? 팀원의 좋은 의견 X -> 이를 검증 할 데이터 O

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지?

시장호응 가설

시장이 팀의 아이디어에 어떻게 반응할지 고객의 반응을 어떻게 이용할건지에 대한 나의 비전 우리 팀의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 전제와 우리 팀의 기대

(식료품 배송)

직장인들은 갈 수록 바빠지고,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져서 식료품을 구매할때 마저 직접 마트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/배송 받기를 원할 것이다.

(공기청정기)

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로 인해 괴로움을 받고 있다.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를 원할 것이며,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길 원할 것이다

더 뾰족하게 가설을 만드는 법

XYZ 가설

XYZ 가설: Y중 X퍼센트는 Z를 할 것이다. (X% of Y is going to Z)

(식료품 배송)

적어도 30퍼센트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1주일에 한 번 10만원 어치의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것이다.

(공기청정기)

적어도 70퍼센트의 서울시민은 20만원짜리 공기 정화 기기를 구매할 것이다

더 뾰족하게 가설을 만드는 법

점점 더 뾰족하게

(식료품 배송) 스타트업 -> 역삼동 스타트업 -> 마루 180

(공기청정기) 서울시민 -> 종로구민 -> 성균관대생

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가설 설정

이거 만들어도 될까??

가설 설정 이후? 프리토타입 테스팅

이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어도 될까? 사람들이 정말 원할까?

본질은 제품이 있는 척 하기

- -> '나만의 데이터' 만들기
- -> '빠르게 수행 할 수 있기
- -> '저렴하게' 수행 할 수 있기

프리토타입 어떻게해?

프리토타입을 설계하자

(예시)

- 1. 음성 인식이 있는 척 하고 사람이 직접 회의록을 작성하기
- 2. 세탁물이 자동으로 접히는 기계가 있는척 하고 사람이 직접 접어주기
- 3. 나무토막이 아이패드인 척 '회의 일정 체크 하는척, 기록하는척 하기'
- -> 나무토막을 하루 몇시간 정도 꺼내보지? 하루에 몇번이나 꺼냈지? 내가 뭐를 위해 꺼냈지?
- 4. 가짜 스마트 스피커를 만들고 대화 나누기
- -> 지금 몇시야? 미세먼지 어때? 노래 틀어줘. 한시간 뒤 깨워줘

(방법)

- 1. 크라우드 펀딩
- 2.SNS(페이스북 페이지)
- 3.체험단 설문 모집
- 4. 랜딩페이지

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?

프리토타입을 분석하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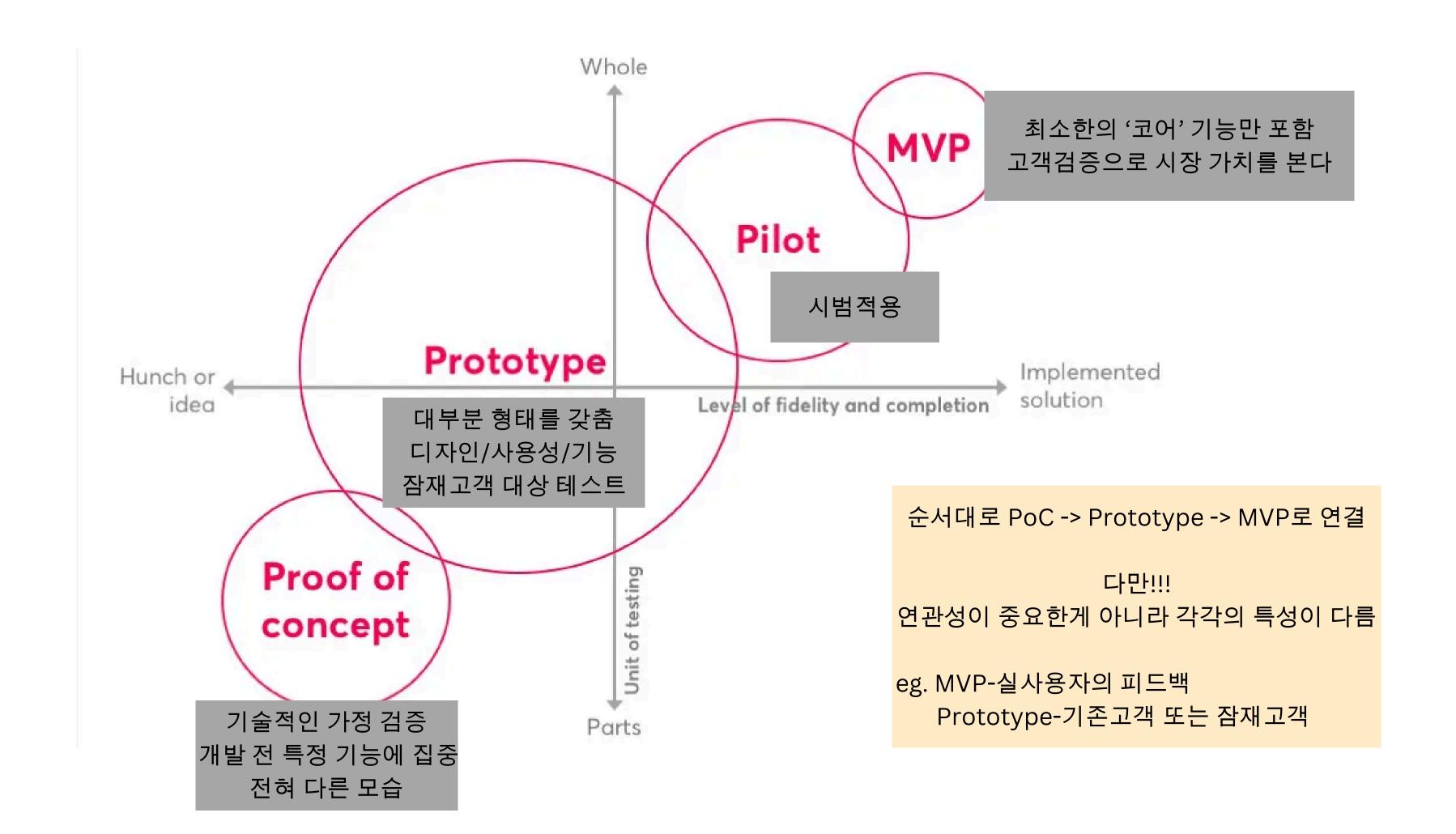
증거의 유형	예시	투자 점수
의견 (전문가 or 비전문가)	"훌륭한 아이디어네" "나라면 안 살거야"	0
격려 혹은 비난	"해봐!" "회사는 그만두지말고" "바보같은 아이디어네"	0
쓰지 않거나 가짜인 이메일 주소 or 전화번호	spam123@spam.com (02)-123-4567	0
소셜 미디어의 댓글이나 '좋아요' 숫자	"형편없는 아이디어네요" '좋아요' 혹은 '싫어요'	0
온/오프라인 설문조사, 투표, 인터뷰	"이런 제품이 출시되면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?"	0

제품 업데이트 및 제품 정보 안내에 사용될 것임을 명시적으로 인지한 유효한 이메일 주소	"제품에 관한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:"	1
랜딩페이지 방문만 한 숫자	100명 방문	4 (25명 당 1점)
제품 업데이트 및 제품 정보 안내에 사용될 것임을 명시적으로 인지한 유효한 카카오톡 ID	"제품에 관한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면 카톡 ID를 남겨주세요:"	5
제품 업데이트 및 제품 정보 안내에 사용 될 것임을 명시적으로 인지한 유효한 전화번호	"제품에 관한 안내 전화를 받고 싶으면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:"	10
시간 투자	30분간 제품 시연에 참석	30 (분당 1점)
현금 보증금	대기자 명단에 오르기 위해 5만원 지불	50 (천원당 1점)
주문	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처음에 나오는 10개 중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 25만원 지불	250 (천원당 1점

얼마나 해야할까?

프리토타입 진행 계획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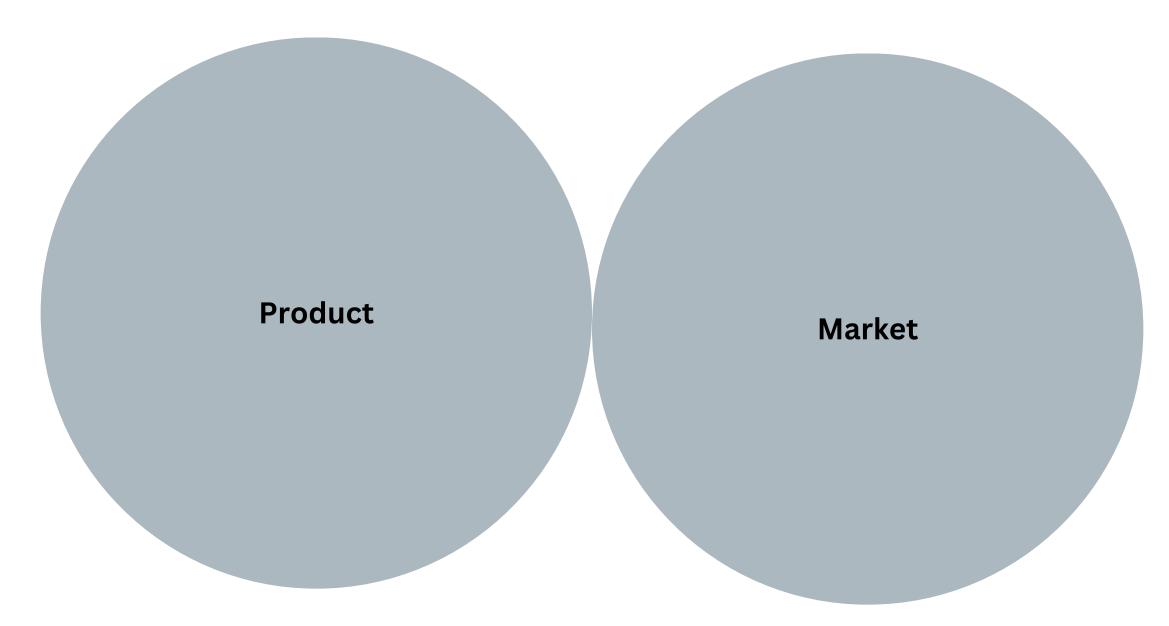
- 1. 일주일 안에
- 2. 100명 이상
- 3. 잠재고객을 대상으로(커뮤니티, SNS광고, 사전설문조사 등)
- 4. 최소 3번 이상
- 5. 나의 가설을 분석하고
- 6. 그 이유를 고객에게 듣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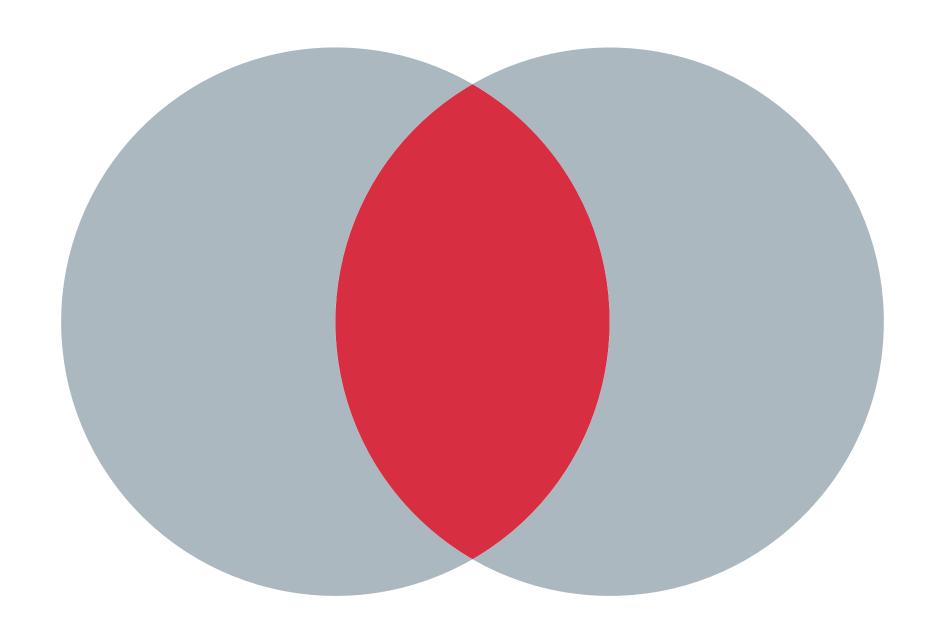
Top three reasons for Start-ups fail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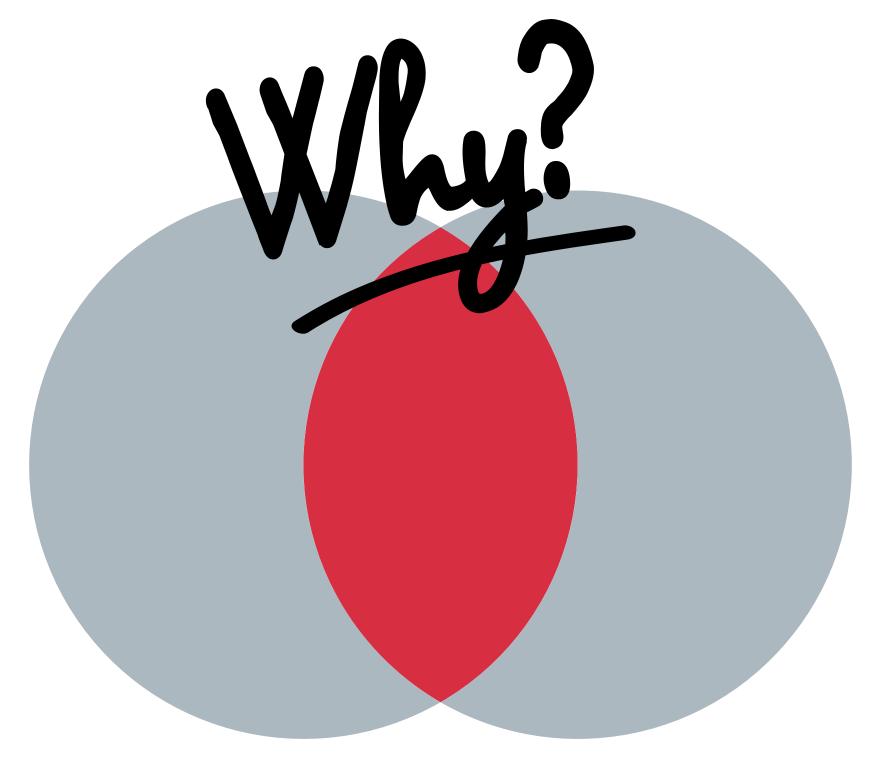
- 1. **No market Need (42%)**
- 2. Ran out of Cash (29%)
- 3. Not the right Team (23%)

You won't die beause of competitors You die because you're not solving a market nee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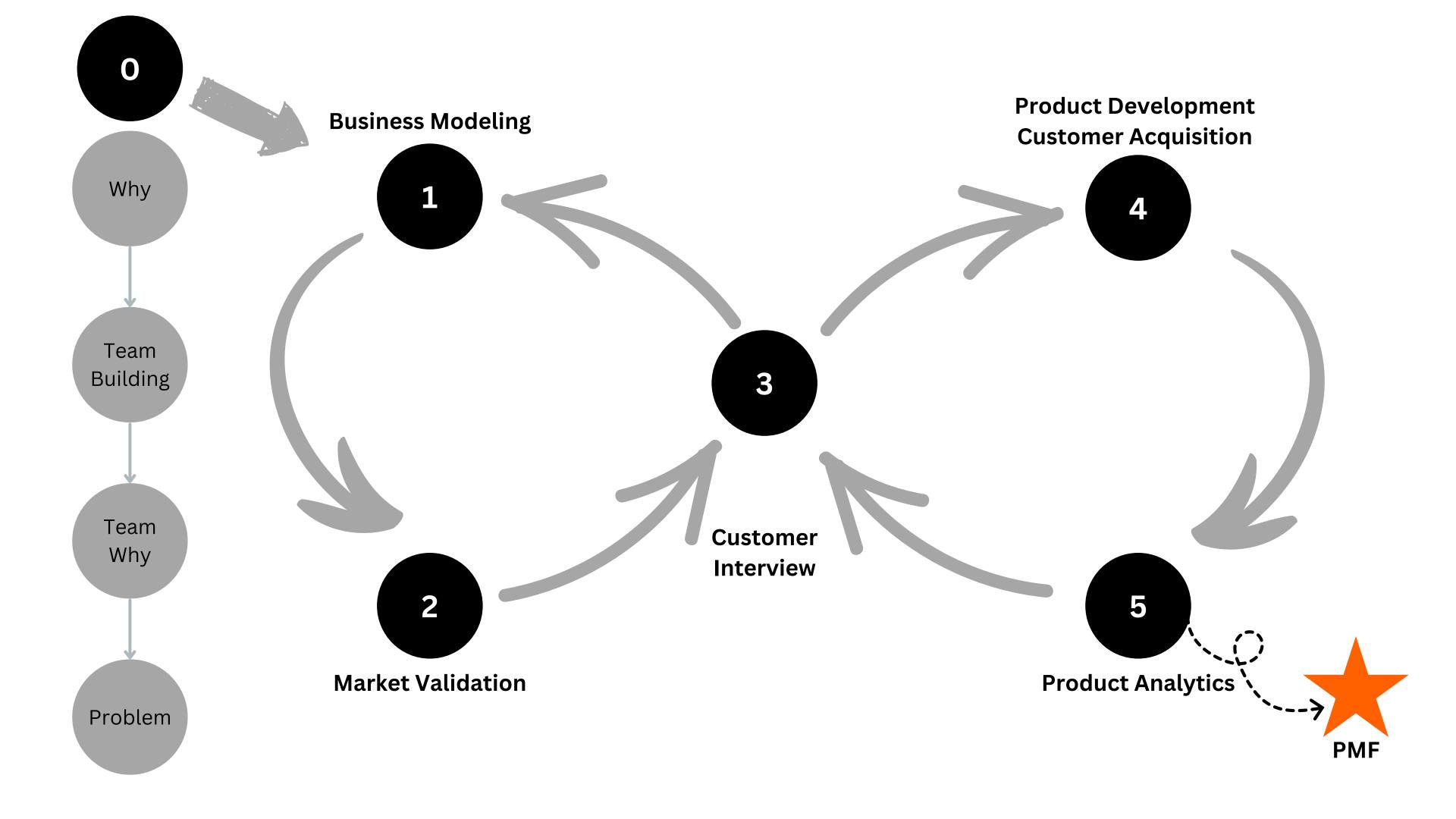
우리의 제품이 시장의 요구와 기대에 얼마나 Fit 한가?





자원 낭비를 줄일수 있음

마케팅을 시도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거나, 개발에 대한 리소스를 불필요하게 가져가면서 시간과 금전적 리소스 투입



- O. 문제 정의 (Problem to solve)
- [1] 원하는 결과 (Desired outcome)
 - : 고객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것
- [2] 동기(Motivation)
 - : 고객이 [1] 을 원하는 이유
- [3] 괴리(Gaps)
 - : 고객이 [1]을 할 수 없는 이유

0번 에서의 가설이 기각 되는 경우: '문제가 충분히 심하지 않다'

- 1. 타겟 고객 (Target audience)
- [1] 타겟 고객의 주요 정의
- 인구통계학적(나이, 성별, 지역)
- 사회적 속성 (직장인, 특정 직업인, 소득 수준) 등등
- [2] 고객 세그먼트 정의
- [1]에서 설정한 속성을 조합해 N개의 세그먼트 구분
- [3] 타겟 우선순위 결정
- 문제의 심각성/중요성을 크게 느끼는지?
- 가치 제안에 대해 높이 공감하는지?
- 우리가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대상인지?
- 우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?
- 높은 지불 의사를 가졌는지?



고객/타겟은 누구인가

1번 에서의 가설이 기각 되는 경우: '시장 규모가 너무 넓거나 작아 정의되어 있지 않음'

- 2. 가치 제안 (Value proposition)
- [1] 슬로건 (Product Tagline)
- [2] 한줄 가치 제안 (Value Proposition)
- [3] 우리 제품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건지



어떠한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

2번 에서의 가설이 기각 되는 경우: '고객이 공감하지 않는 해결책'

- 4. 차별점 (Competitive advantage)
- 5. 성장 전략 (Growth strategy)
- 6. 수익모델 (Business model)



'경쟁 업체와 차별화되지 않음' '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부족' '제품이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함'

PMF 측정지표

1. 정량적 지표

- 1) NPS(순추천점수): O과 10 사이의 척도, 고객만족도가 높고 다른사람에게 추천해줄 확률이 높은 것.
- 2) 성장률(Growth rate): 특정기간 내 지표들이 커지는지 비율로 확인 (고객 수, 매출, 다운로드 수 등)
- 3) 재방문율(Retention rate) :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다시 이용하는 비율
- 4) 40% rule: Dropbox.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면? 40% 매우 실망 ->고객의 필수품이 되었다고 확인!

2. 정성적 지표

시장반응 : 고객, 업계사람들, 언론 등 리뷰, 추천, 보도 등으로 확인

PMF를 맞추는 중요한 요소

- 1) 가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
- 2) 데이터 확보
- 3) 최대한 빠르게
- 4) 정답은 언제나 고객속에